

➤ 2019년 장애인을 위한 페스티벌 사랑의 마당축제 행사장 이모저모



토렌스제일장로교회와 중앙일보 산하 비영리기관인 해피빌리지가 공동 주관한 장애인을 위한 제 35 회 사랑의 마당축제가 200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 월 27 일(토) 위티어 내로우 팍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기념 촬영



금년에는 다양한 커스텀이 등장해 참가자들을 즐겁게 참가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남가주사진작가협회 김상동 회장과 회원들이 사진을 찍어 키체인에 넣어주는 봉사를 펼치고 있다. 매년 500 여명에게 사진을 찍어서 넣은 키체인을 선물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해준 o.c 한인 라이온스클럽 전현식 회장을 대신해 조장래 전임회장과 프란시스 총무가 해피빌리지 김영환 대표와 참가자 치셔츠를 들고 함께 포즈를 취했다. o.c 한인 라이온스클럽은 행사를위해 불고기 200 인분과 피자 그리고 회장실 렌트를 지원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후원 하였다